

부울경 미래 경제발전의 초석이 될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 촉구

부산·울산·경남 경제계 공동 성명

부울경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이번 2월 국회에서 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부산, 울산, 경남 경제계는 한마음 한 뜻으로 가덕신공항 건설을 염원하고 있고, 이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가덕신공항 특별법 조속 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부울경의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일자리가 줄어들어 청년은 지역을 떠나가고, 지역은 활기를 잃어가며 노후화 되고 있다. 부울경이 가진 경제벨트와 지리적 이점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덕신공항은 반드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가덕신공항은 세계적 항만인 부산항과 진해신항 그리고 유라시아 철도를 결합할 수 있는 하늘-바다-육지 연계로 동북아 복합물류 거점으로써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제신공항이다.

이제는 단순한 여객공항이 아니라 물류 기능이 함께 결합된 공항이 필요하다. 동남권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항만과 바로 연결되는 공항이 반드시 필요하고,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서라도 24시간 운영가능한 가덕신공항이 조속한 시일내에 건설되어야 한다. 영남권에서 발생하는 물류의 96%가 인천공항에서 처리되고 있는데, 가덕신공항이 건설되면 지역업체의 물류비 부담도 경감할 수 있다

대구경북과 일부 언론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대구경북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추진하고 부울경은 가덕신공항을 추진하여 서로간 경제협력을 이루며 상생발전하면 좋을 것이다.

가덕은 안전성과 확장성, 물류와 여객을 선도할수 있는 최적의 신공항 입지이며, 2002년 돛대산 민항기 참사 이후 안전하고 24시간 운영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20여년간 이어져 오는 부울경의 숙원사업이다.

부울경의 새로운 도약 기회인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서라도 가덕신공항이 2029년까지 건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필수다. 가덕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트라이포트 완성으로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 ‘가덕신공항 특별법안’을 발의하여 국회 상임위 심사중이다. 여당 대표는 당론으로 2월에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하였고, 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당론으로 가덕신공항건설 지지를 표명하였다. 부울경의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노력해주심에 대하여 부울경 경제계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시도민과의 약속이 꼭 이행될수 있도록 특별법이 제정되어 공포되는 그날까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부산, 울산, 경남 경제계는 다시 한번 더 촉구한다. 침체된 부산, 울산, 경남의 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이번 2월에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2월 15일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허용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전영도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구자천